

# 개요서



## LGBTQ+

# 노인층 설문 조사 보고서

2021년 9월

Karen Fredriksen Goldsen,  
Hyun-Jun Kim, Hailey H.  
Jung, Adam Davis, Charles  
A. Emlet

The Goldsen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GING & PEOPLE WITH DISABILITIES

## 개요서

오리건주에서는 인종과 민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적 표현에 따른 다양성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sup>1</sup>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LGBTQ+(성소수자)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문제, 필요, 자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에 관한 오리건 복지부(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ODHS) 주정부 계획에서는 소외된 인구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sup>2</sup> 이 연구는 ODHS 고령화 및 장애인 사무국(Office of Aging and People with Disabilities)의 의뢰를 받아 지역사회 기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오리건주 전반에 걸친 행동 위험 요소 감시 시스템(OR-BRFSS)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전 연구의 참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인구를 포함해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55세 이상 LGBTQ+ 오리건 주민의 위험, 필요,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

OR-BRFSS의 추정치에 따르면, 55세 이상 오리건주민의 약 3.4%가 레즈비언, 게이 또는 양성애자(LGB)로 파악되며, 여기에는 여성의 3.2%, 남성의 3.8%가 포함됩니다. 이는 동일 연령대의 전국 추정치인 1.3%~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sup>3</sup> OR-BRFSS의 트랜스젠더 노인 인구 표본 크기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사항은 LGB 인구만을 나타냅니다. 오리건의 LGB 노인 인구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하며, 이성애자와 비교해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령이 더 낮음(65.7세 vs 67.4세)
- 유색 인종(10.7% vs 8.1%)
- 더 높은 교육 수준과 비슷한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 42.5% vs 36.6%)의 200%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 부족과 차별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을 가능성이 낮음(48.3% vs. 62.2%)



-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음(36.9% vs. 28.5%)
- 건강 사안 불균형, 열악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장애, 동반 질환의 위험성 증가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장벽 경험 가능성이 높음(10.5% vs. 7.2%)

## 서비스 이용

55세 이상의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LGBTQ+ 성인 1,402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및 보건 서비스
-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 정신 건강/약물 사용 치료
- 식품 지원
- 약품 지원
- 교통

설문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이 어렵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 높은 비용
- LGBTQ+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경험 또는 인식되는 서비스
- 이용성 부족 및 서비스를 찾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저소득층, 히스패닉,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참여자들 사이에서 충족되지 못한 법적 계획 필요가 특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유언, 유언장,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위임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임종 치료 계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부정적인 경험

오리건주의 LGBTQ+ 노인 참여자 중 거의 60%가 1년 이내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또는 표현(56%), 나이(42%), 성별(30%)
- 차별 위험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91%),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94%),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86%) 사이에서 특히 높음

참여자 5명 중 1명(21%)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료, 노인,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묻지 못하고 의료 소비자가 알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sup>4</sup>

LGBTQ+ 노인 참여자 중 거의 4명 중 1명(24%)이 지난 1년 동안 노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4명 중 3명 이상(76%)은 해당 경험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학대 신고에 가장 일반적인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LGBTQ+에 대한 관계 당국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불신(26%)
- 경험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20%)
- 신고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16%)
-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두려움(16%)

오리건은 미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9번째로 높습니다.<sup>5</sup> LGBTQ+ 노인 참여자의 1/5(21%)이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sup>6</sup> 자살 충동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 55세~64세, 저소득층, 시골 지역 거주자, 게이 남성

트랜스젠더, 퀴어, 성적으로 다양한 참여자 및 HIV 감염자는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LGBTQ+ 노인 참여자는 특히 게이 남성, 55세~64세, 저소득층,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도시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흡연율과 과도한 음주율을 보고했습니다.

### 경제 및 주거 안정성

LGBTQ+ 노인 참여자의 1/3은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연령이 낮고, 유색 인종, HIV 감염자, 시골 지역 거주자일수록 높아집니다.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배제는 LGBTQ+ 노인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sup>7,8</sup>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sup>9</sup>

2/3(64%)에 달하는 참여자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보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에 대한 우려(38%)
- 압류 또는 퇴거 위험(36%)
- 노령화와 관련된 필요(29%)
- 안전하지 않은 거주지 또는 환경(11%),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율 증가(9%)
-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이사하고 싶은 마음(11%)

주거 불안정성은 게이 남성, 낮은 연령층, 저소득층, 도시 지역 거주자,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거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들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COVID-19의 영향**

COVID-19은 미국 전역에 소외된 커뮤니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많은 LGBTQ+ 노인 참여자는 팬데믹에 잘 적응하며 회복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95%)이 백신을 맞았으며, 절반 이상(52%)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사용 방법을 배웠습니다.

• LGBTQ+ 노인 참여자 중 25% 이상이 COVID-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사회적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 트랜스젠더 성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시골 지역 거주자들은

사회적 인맥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보고합니다.

• COVID-19 팬데믹 이후로, 참여자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45%) 및 성인 주간지원 프로그램(41%) 등

필요한 많은 서비스의 사용 감소를 보고합니다.

### **사회적 자원 및 회복력**

LGBTQ+ 노인 참여자는 "회복"에 있어 고유의 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70%가 넘는 LGBTQ+ 노인 참여자에게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 이상 있습니다.

- 40% 이상이 신앙, 영적 또는 종교적 예배에 참석합니다.
- 대다수는 다른 사람 돕기(79%), 도움 받기(62%), 옹호 활동에 참여하기(60%)를 통해 LGBTQ+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LGBTQ+ 참여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참여자들은 가장 높은 회복력을 보고했습니다.
- 긴밀한 관계 및 커뮤니티에도 불구하고, 거의 20%에 달하는 참여 자가 사회적 지원 부족을 보고했으며, 이는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27%),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23%),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24%) 사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고속 인터넷 액세스 부족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필요는 저소득층,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인 및 태평양섬 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참여자들 사이에서 특히 높습니다.

## 결론: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오리건주의 LGBTQ+ 노인은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회복력 있는 집단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고령화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성과 누적된 위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LGBTQ+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정책, 서비스, 교육, 연구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LGBTQ+ 노인의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커뮤니티, 고령화 기관, 주, 지역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해 LGBTQ+ 조직에 관한 초기 작업과 옹호 그룹의 활동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는 주 정부 기관이 커뮤니티의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전략, 프로그램,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문제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지리적인 지역뿐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및 배경적 특징에 따라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성별, 성 정체성 및 표현, 인종/민족, 나이, HIV 상태, 지리적 지역, 사회경제적 상태를 비롯해 다루어야 할 특정 하위 인구 집단 내에 다양한 위험뿐 아니라 이러한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LGBTQ+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또한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이 원격으로 제공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연결성을 지원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액세스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미국 전역의 다른 지역에서 LGBTQ+ 노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문화적으로 포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면 LGBTQ+ 포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오리건의 도시, 지방, 도시 커뮤니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참여자들이 고령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으며, 상당 수가 지난 1년 동안 명백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돌봄에 대한 이러한 장벽을 줄이려면, 고령화,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자 및 법률 전문가를 위한 문화적 포용성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여 변화를 관찰하며 고령화, 의료,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교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LGBTQ+ 조직 및 커뮤니티 노인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 주, 연방 계획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주요 이해 관계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LGBTQ+ 노인 및 그 가족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정책 및 연구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인용: Fredriksen Goldsen, K., Kim, H.-J., Jung, H. H., Davis, A. & Emlet, C.A. (2021). *오리건 LGBTQ+ 노인층 설문 조사 보고서*. Seattle, WA: Goldsen Institute.

©Goldsen Institute 2021,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이 연구는 ODHS 고령화 및 장애인(ODHS Aging and People with Disabilities)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문서는 기타 언어, 큰 활자체, 점자 또는 선호하는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03-945-5600번 또는 [SUA.Email@dhsosha.state.or.us](mailto:SUA.Email@dhsosha.state.or.us)로 오리건 복지부 고령화 및 장애인 사무국(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Office of Aging and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연락하십시오. 모든 중계 전화를 받습니다. 또는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he Goldsen Institute  
1414 NE 42 Street, Ste. 203 • Seattle, WA  
98105 [GoldsenInstitute.org](http://GoldsenInstitute.org) •  
[GoldsenInstitute@uw.edu](mailto:GoldsenInstitute@uw.edu)

ODHS Aging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500 Summer Street NE, E-10 • Salem, Oregon 97301  
[SUA.Email@dhsosha.state.or.us](mailto:SUA.Email@dhsosha.state.or.us)